

인구와 사회

13주차

생산인구 부족과 대책

생산인구 부족

- 과학기술이 해법?
 -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여왔으므로 인구의 필요성도 감소
 - 그러나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는? – 생산인력 급감 시점과 발전한 과학기술 적용 타이밍이 들어맞는다면 문제 없겠지만, 타이밍도 딱 들어맞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곳부터 순서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

이민

- 토론: 이민이 인력부족 해결?
-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 - 외국인을 받아서 공백을 메우면 단기간에 인구피라미드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음
- 인구변동단계설 - 출산율, 사망률, 인구이동 등의 인구요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반으로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가설
 - 1단계 변동 - 고출산율, 고사망률 → 저출산율, 저사망률. 개인과 사회적 웰빙 수준의 급상승
 - 2단계 변동 - 기대수명이 크게 높아지고 가족 형태가 바뀌어 반드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는 단계
 - 3차 변천 - 1,2단계 완료된 후 다른 나라의 젊은 인구 유입

이민

- 고령화 초저출산 겪은 이탈리아, 독일, 스페인, 일본 중 인구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는 일본뿐
- 다른 나라가 일본 같은 타격을 입지 않은 이유는? 이민 덕분
- 서유럽은
 - 출산율이 낮아도 EU로 하나가 되고 동유럽 몰락으로 젊은이들이 유입
 -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젊은이들 유입
- 미국은 - 히스패닉과 동양인 이주민이 백인 인구 공백 메움

이민

- 한국은?
 - 현실성 있는 대안처럼 보임
 - 2006년 ‘이민청’ 도입 의견 제시
 - 750만 재외동포
 - 현재도 제조업, 건설업, 농수산업 등에서 외국인 의존도 높음
 - 대학 – 외국인 유학생
- ‘지금 당장은 아니다’

생산인구 부족?

- [도표3-4] 현재 인구절벽?
- 아직은 인구절벽 상태는 아님
- 2027년 25~59세 인구가 2500만 하회
- 2028년 일하는 인구 비중이 전체의 50% 하회
- 2031년 일하는 인구가 2021년 대비 315만 명 감소
- 인구절벽 시작되면 이주민 수용?

정년 연장

- 정년이 연장되면 인구절벽 시점도 연기될 것
- 토론: 정년연장 찬성? 반대?
- 정년 연장은 연금, 건강보험 등 고령자들이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기금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
- 동시에 미래 청년들이 가파른 세금 인상 없이 우리가 내던 정도만 내고도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
-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?
 - 초저출산 세대인 Z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할 때까지, 정년 연장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할 것

한국은 이주민에게 매력?

-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
- 거주 외국인 적고 언어 등 불편
- 임금 수준도 일본보다 낮음
- ‘고급인력’이 미국, 유럽, 싱가포르, 일본 등을 뒤로하고 한국 선택?
- 해외동포?

-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행 제도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외국인이나 동포들의 이주로 2030년의 인구절벽을 막기보다는, 우선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 인구절벽 시작 시점을 뒤로 미루고, 그사이에 외국인의 이주 혹은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존전략
- 국내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경 쓸 것
- z세대

정년 연장

정년 연장 반대

정년 연장 2